

제 62 호

연중 제 4 주일

1974. 2. 3

숲정이

발행인	김영신
인쇄인	김봉희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강론]

자기 반성

이상호 신부



“의사여, 네자신부터 고쳐라”는 유대아 속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속담을 들어 그당시 사람들을 교훈 하셨습니다. 오늘에도 우리에게 큰교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비난을 일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남을 비판, 비난하기전에 제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바르지 못하면 비판은 비판에 그치고 말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항상 먼저 실천하신후 가르치셨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참회 즉 자아비판의 공의회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강생구속 근본목적은 인류구원에 있으며, 하느님의 백성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데 있고, 인류의 일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근본부터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공의회에서도, “교회란?”, “평신자란?”부터 새로 정의하기 시작했고, “주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를 다시 검토했고 “교회가 갈라진 원인”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해줌으로써 일치의 길을 터놓았습니다. 또 현대사회를 재분석, 인식하여 시대의 징표를 알아내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현시대에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던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성년을 <화해의 성년>이라 이름짓고 하느님과 교회, 하느님과 나, 그리고 나와 이웃이 오해와 감정과 잘못을 풀고 용서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이 지상에 이루어 지도록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반성이 앞서야 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살펴 잘못을 알아내어 뉘우치고, 회개 해야 합니다. 마음을 바로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반성을 해도 소용 없습니다. 나와 하느님과 관계는 어떠한가, 너무 이기주의 신앙이 아니었던가, 이웃에 대한 사랑에 너무 냉혹하고 무관심하지 않았던가, 교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가, 복음선포에 등한하지 않았던가, 또 사회의 공동선을 추진하는데 소극적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지금까지 세속과 육신을 너무 원수시해왔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는데 회피적이었고, 세속의 발전에 눈을 감고 안일하게 있다가 젊은이와 노동자와 일반대중을 잃고 말았습니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물론 교회내각 기관, 각 단층, 각 조적도 지금까지의 타성이나 그릇된 전통, 좁은 사고방식, 배타적 행동을 버리고 깊은 이해와 넓은 아량, 신속한 행동과 협동 단결,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선의의 경쟁과 유기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새 역사, 새 교회건설에 총화토써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부안 성당 주임 신부)

이주일의 미사

- (1)개회식
 - 입당송** 주 우리 하느님이며, 우리를 구하소서. 못 나라들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케 하소서. 당신을 찬미함이 우리의 영광되게 하소서.
 - (2)**말씀의전례**
 - 제1독서** (에레 1: 4-5, 17-19,) 이방인들 가운데 너를 예언자로 보낸다.
 - 증계송** ◎주여, 내 입이 당신의 구원을 이야기 하리이다. 주여 내 믿는데 당신이시고 어려서부터 나의 희망 야훼님이이다. 어미의 품에서부터 님은 나의 힘. 모태에서부터 님은 내 의지시이다. ◎
 - 제2독서** (고린트전서 13: 4-13, 성서 P 393) 신앙애의 삼덕이 있으나 가장 큰 것은 애덕이다.
 - 알렐루야**, 알렐루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들에게 석방을 알리라.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 알렐루야.
 - 복음** (루가 4: 21-30, 성서 P 433) 예수님은 엘리야나 엘리세오처럼 유대아인들에게만 파견되신 것이 아니다.
 -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일선 선봉장들의 교육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들의 사명의식이 더욱 높아져 훌륭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2. 주여, 오늘부터 꾸르실로 교육이 시작됩니다. 수강자들이 성신의 인도하심을 올바르게 따를 수 있게 하소서. ◎
 3. 주여, 우리는 남을 헐뜯기 일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남의 눈에 티끌보다는 내눈의 들보를 볼 줄 알게 하소서. ◎
 - + 주여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남을 용서해 주어야 용서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주...◎아멘
- (3)**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 영성체송** 당신의 종 위에 당신의 얼굴을 빛내어 주시고,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살려 주소서. 주여, 내 당신을 불렀음이 유택되지 말게 하소서.
- (4)폐회식

* 숲정이 산책 *



주일 (主日)의 역사



박진량 신부

주일의 역사는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 자신에서부터 시작된다. 요한 복음 20장26절을 보면 부활한지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신앙을 전고케 하셨다. 이렇게 첫번 주일인 부활날로 부터 여드레후인 일요일에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과 함께 집회를 가지신 것이다. 그후 사도들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을 안식일(토요일)보다 더 비중이 큰 집회일로 지냈으며 안식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에 불과했다.

안식일을 고집할 법한 예루살렘에서도 1세기 말엽에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는 신자들에게 일요일을 집회날로 지키라고 명령했고, 그리고 그날 모든 신자들이 한 곳에 모여 빵(성체를 말함)을 쪼개며 죄를 고백하고 영성체를 하라고 했다. 또 2세기 중엽에 살았던 성 유스티노는 「태양의 날에는 도시와 농촌에서 모든 신자들이 한 곳에 모여와 사도들의 편지와 예언자들의 글을 읽곤 했다. 왜냐면 그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이들 가운데서 부활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 다음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신앙의 자유(313년)를 준 다음에는 태양신과 그리스도를 함께 공경하기 위해서 태양의 날이요, 동시에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날인 일요일을 법적 축제일로 제정하고 따라서 육체노동을 피하고 쉬는 공휴일로 지내도록 했다.

이 주일에 대하여 바티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 그 기원을 둔 사도시대의 전통을 따라, 그리스도의 성교회는 여덟째 날마다 바스카의 신비를 경축한다. 바로 이 때문에 이 날을 합당하게도 주의 날 혹은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날에 신자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사성체에 참여함으로써, 주 예수의 수난과 부활과 영광을 기념하고, 하느님께 감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일은 근원적 축일이니, 신자들의 신심을 일깨워 주어, 이 날이 또한 즐거움과 휴식의 날이 되도록 강조 해야한다. 참으로 극히 중요한 것이 아니면 다른 축제를 이와 대치하지 말것이니, 주일은 전례주년 전체의 기초요, 핵심이다.」 (전례현장106조)

평화 속의 “나자로 마을”



김원희

몰로카이 섬의 「다미안」신부를 「여러분은 아시나요?」 무관심 했던 나병환자에 대해서 알게 된것은 지난 9월 「나자로 마을」을 방문하고 부터이다. 젊음을 이곳에 바치는 박수잔나씨를 만나 이곳 「나자로 마을」과 「다미안」신부에 대해서 자세히 듣게 되었다. 「이곳은 어쩔수 없이 격리 되어야 하는 나환자들이 또한 사회와 가정에서 멸시를 받는 이유로 그래도 푸른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기에 정착하여 주님께 의지하며 살고있는 곳이다.」

100년전 젊은 「다미안」신부는 사회에서 버림받는 나환자 수용소인 몰로카이섬에 자기를 돌보지 않고 바치므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결국 나환자로 돌아가신 분이이다.

나병이란 절대 유전이 아니라는 사실은 익히들어 알것이다.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가 나환자를 대하고, 생각하는 태도는 과연 어떠한가?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 격리되어야만 하는 슬픔, 더구나 그 병이 나아 볼수가 된 몸은 사회의 냉대를 받으므로 결국 그곳에 주저 않고 마는 그들의 슬픔에 우리는 얼마나 동참 했던가?

우리의 무의식적인 냉대가 그들의 재생을 위축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이곳의 나환자들은 신체적인 노동은 금하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매우 깊은 신앙심을 갖고있어 우리의 믿음울 의심케 할 정도이다. 그런데 우리는 충분한 신앙심과 노동력을 한꺼번에 건강한 몸에서 지니고 있다는 큰 행복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이 행복과 기쁨을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들은 우리보다 몇십배의 필요성을 갖고서 이 기쁨을 누릴 것이다.

주님을 믿고있다고 자칭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활 하겠다고 도움을 청하는 형제들을 차갑게 외면할 수가 있을 것인가? 또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다미안」신부의 희생적 정신은 자박한 현대에도 우리 주위에 살고있어 「나자로」회원은 국내, 국제적으로 퍼지고 있다. 그러나 나환자는 수없이 많이 있어 우리의 도움은 언제나 요구되고 있다. 우리가 뿌린 사랑의 씨앗은 머지않아 싹트리라. <대학생>

◎「나자로 마을」주소 : 경기도 시흥군 의왕면 오전리 87번지 □우편번호 170. 수원 우체국 사서함 33호

장의차·꽃상여·입관 입관부속 일체 준비

최 씨 관 집

◎ 교우들에게 특별염가 봉사 ◎

최 병 화 (그레고리오)
전주 남부시장 B동 87호
(전화 ② 6691 교현85 번)

선물용 케익과 빵, 파자, 찹쌀떡 준비!

프 랑 스 제과 * 임 금 님 찻집 *

전주 전신 전화국 앞
● 제과 ⑤5011 찻집 ⑤5013
김 원 준(야고버)

고급 선물용, 케익, 빵, 파자, 찹쌀떡
◎교우들에게 특별 할인◎

미 미 제과 상업은행 옆(⑥589)

미미 사진관
미미 예식장
남문 옆(③3915)
김 민주(가타리나)

양 지 쪽



꼬마의 효심(孝心)

영하 15~16도의 혹한이 맹타한 지난 설달 그믐날, 아버지와 열살난 아들 정재수군은 경북 상주의 자택에서 충북 보은의 큰맥을 향해 마룻재란 산골을 걸었다. 큰 아버지에게 드릴 선물 닭 한마리를 사들고 구정차레를 하기 위해서였다.

아버지 정태희씨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 술을 마셨다. 산중턱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는 술에 취해 눈길위에 쓰러져 잠이 드셨다. 생명의 불이 추위에 꺼져갔다. 재수군의 가슴의 피가 얼기 시작했다. 죽음을 의식한 것은 아버지 정씨보다 재수군이였다.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아버지의 어깨위에 올려놓았다. 사람이 절망의 죽음앞에 설 때 본능은 무섭게 작용한다. 그러나, 재수군은 자기의 생명보다 아버지의 생명이 더 중요했다. 고사리같은 손발이 얼고 피로에 지친 재수군도 잠이 들었다.

설날 아침, 재수군의 정성도 아랑곳 없이 아버지는 재수군의 옷을 걸친 채 동사했고 속옷차림의 재수군도 하얀사리를 맞고 죽어갔다. 재수군의 영웅적 효심이 알려지자, 각계에선 재수군 호도공덕비 추진비를 만들고, 2백만원까지 희사한 특지가도 생겼다. 재수군의 영웅적 효심행위는 애처롭도록 감동적이다. 요즘 어른들이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인간적 행위를 어린이들은 용감히 실천한다.

지난 28일부터 1일까지, 교구는 거본당적으로 아동교리교사 연수회를 가졌다. 각 본당이 어린이들에게 참된 신앙의 길잡이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시키기 위해 젊은 교사들을 동원하고 있다. 교회는 어린이들을 위해 각종행사와 사업을 벌이고 있다. 어린이없는 사회는 희망과 꿈을 잃은 집단에 불과하다. 교회는 어린이들의 '동산' 이어야 한다. 이들이 먼훗날, 어른들이 될때 교회가 심어준 신앙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도록 환경조성과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어린이없는 교회는 내일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미래의 교회를 위해 어린이의 감정과 인격을 정당하게 길러 줘야한다.

사실 교회는 재수군과 같은 인물을 필요로 한다. 효심이 두터운 제2, 제3, 재수군을 교회가 가지고 있을때, 성부에게 죽기까지 순명한 그리스도처럼, 절대적인 적극적인 행동이 수출하지 않을까? (길)

요십이 (29) 김병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성 바오로 서원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관장 신부 박진량, 총무 안지은, 전화 3498)

- 매주 월요일 7시30분...일본어 교실
- // 목요일 8시... "목요일 밤에" (남녀 젊은이들의 대화)
- // 금요일 8시...레크레이션 (주최; 가톨릭 센터와 J.O.C.)
- 외국 문화 교실 English Conversation.....월~금요일 7시

* 이 주간의 성경 *

- 4(월) 독서(히브리 11:32-40, 성서 P.515) 복음(마르코 5:1-20, 성서 P.84)
- 5(화) 성녀 아가타 동정 순교 기념 독서(고린트전 1:26-31, 성서 P.372) 복음(루가 9:23-26, 성서 P.151)
- 6(수) 성 바오로 미끼와 그 동료 순교 기념 독서(갈라디아 2:19-20, 성서 P.429) 복음(마태오 28:16-20, 성서 P.73)
- 7(목) 독서(히브리12:18-19, 21-24성서 P.517) 복음(마르코 6:7-13, 성서 P.87)
- 8(금) 성 에밀리아노:7.20 독서(히브리 13:1-8, 성서 P.517) 복음(마르코 6:14-29, 성서 P.88)
- 9(토) 성모 기념 독서(히브리 13:15-7, 20-21성서 P.518) 복음(마르코 6:30-34, 성서 P.89)

제일 비싼 독일의 3년 연속 V.A. 번식 성적 1위인 판토호의 직자



렉스 V 래토프

(입한전 애견)

문의처: 전화 7692(진북동 어은골)

* 교형 여러분의 집 *

스타 사진관

장남 수(바오로)

● 오거리동, 동아서관 앞 전화 3 6094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 옆 중앙 시장동 (전화 4577)

제 4 지구 6 개 분 당 소 식

- 1. 제 7 차 꾸르실료 (3<일>~6<수>, 가톨릭 센터)
 - ① 신앙생활의 단기 훈련과정인 꾸르실료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전주시 서노송동 가톨릭 센터내 꾸르실료 사무국 < 2월 5일 까지)
 - ② 기도내용-미사참례 (□회), 영성제 (〃), 성체조배 (〃), 십자가의 길 (〃), 묵주의 기도 (□만), 화살 기도 (□회), 주모경 (〃), 묵상 (〃), 마사봉헌 (〃), 회생 (〃), 기타
- 2. 제 3 회 전주교구 교리교사 연수회 102명 수강, 99명 수료
수강자 총수 (24개 본당 참여)...102명(남자 49명, 여자 51명 수녀 2명)
- 3. 전주 해성 중 고등학교 소식
개교 10여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해성에서는 전기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 성적이 두드러져 전북 도민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같이 기뻐합니다.
해성중...전교 수석(백 춘기), 전주 공고 수석(안윤엽), 전주 상고 차석(안 종문)
해성고...전기 대학 입학 성적 75% (졸업생 수 250, 응시자 수 220, 합격자 수 165)
전북 공대 수석(박 복춘), 전북대 과 수석5명(차석 2명), 부산 수대 차석(이 준성)을 비롯하여 서울대 5명 합격(8명 응시), 전북대 80(120), 고대 4(7), 연대 1(1), 공주사대 4(5), 육·해·공사5(8), 교대10(12), 등

(중앙)

전화 ㉠2651 ㉡3874 주임 신부 안복진 보좌 신부 박창신 사도 회장 이복석

-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 후)
- 2. 꾸리아 월례회 (9일<토>오후 3시-성년 행사중)
- 3. 꾸르실료 성공을 위해 기도 합니다. 빨랑까(영적예물)을 보냅니다.
- 4. 주일학교 졸업및 증업식 (다음주일 공식 미사 후)
- 5. 주일학교 예비자 교리 (3월에 개강)
- 6. 감사 합니다. 이 기성 교장 선생님(관촌 중)께서 애령회를 위하여 5,000원 회사 하셨습니다.
- 7. 신용조합 정기총회 (다음주일 공식 미사 후)
 - ① 1973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이익 배당)
 - ② 1974년도 사업 계획, 예산승인.
 - ③ 시상 및 기념품 전달. ④ 복권추첨. ⑤ 점심제공
 - ※ 가입 희망자 참석 환영합니다.
 - 지난주일 봉헌금 41,493원
 - 구라주일 특별 헌금 14,047원, 감사합니다.

(북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 후-사무실)
- 2. 예비 신자교리 (매주 일-공식 미사후, 수-미사후)
- 3. 유아 세례 (5일<화> 오전 10시)
- 4. 사제 양성 후원금 자진 신입하신 금액을 제달에 납부하여 적금불입에 협조 합니다.
- 5. 북자 성우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 미사 후)
- 6. 주일 봉헌금에 정성을 다 합니다.
 - 지난주 성미 2말 4되 (누계 246말 4되)
 - 지난주 봉헌금 15,445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 1. 피정 신공 (2-3일 까지) 사도회, 레지오단원, 각 공소회장, 구역장 반장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타 분들도 많이 참석요망함.
- 2. 사도회 월례회는 없습니다.
- 3. 자모회는 다음주로 연기.
- 4. 신용 협동 조합 강습 전 조합원 및 신규 가입자의 빠짐없는 참석바람 10일 공식 미사후, 11일, 12일 저녁 미사 후
 - ★ 축 결 혼 ★ (2월 7일 오전 11시)
 - 신랑 양성호 신부 손춘옥
 - 지난주 봉헌금 13,015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현 사도 회장 조해형

- 1. 예비자 교리 (오늘 공식 미사 후)
- 2. 주일학교 개강 (2월 9일<토>)-부모님들의 협조요
- 3. 새해 구역 반상회 미사 일정 =중노 1가동 박 방지거 <구신>회장 관할구역=
4(월)-김 살로메(인숙)반장, 5(화)-오 모니까(정옥)〃, 6(수)-김 마리안나(수진)〃, 7(목)-소 모니까(귀례)〃, 8(금)-전 바오로(길남) 임 에딧따(봉희)〃 9(토)-양 베로니까(광석)〃, 11(월)-노 아가다(계순)〃, 12(화)-백 안나(옥남)〃 최 아다가(금연)〃
□ 지난주 신축성미 2말 5되 (누계 127말)
지난주 봉헌금 15,135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재진

- 1. 예비자 교리 (매주 공식, 저녁 미사 후)
- 2. 성심 유치원 원아 모집 (1월 20일-2월 25일)
- 3. 사도회 월례회 (오늘 저녁 미사 후) 인원 및 구역장 전원 참석 요망
- 4. 대건 신용조합 정기총회 (2월 14일 오후 7시 30분) 각 조합원은 성원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불참시에는 위임장을 보냅니다.
- 5. 가정방문 기도일정 7일(목)...남노송동 전구역 8일(금)...풍남동 (조정희, 이신경, 이옥순 구역) 9일(토)...풍남동 (이장현, 김은순 구역) ※ 서, 동교동 가정방문시 누락된 가정은 사무실에 신고 요망
- 6. 유아 세례 (오늘 공식 미사 후) □지난주 봉헌금 39,171원 구라주일 특별 헌금 12,05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김종환

- 1. 사도회 확대회 (오늘 공식 미사 후-회의실) 임원및 구역장, 공소회장님들의 빠짐없는 참석바람
- 2. 신용조합 임원회의 (다음주일 공식미사후-회의실)
- 3. 아담미사 (매주일 오후 4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미사에 많이 참석도록 협조
□ 지난주 봉헌금 6,595원 구라주일 특별 헌금 7,915원. 감사합니다.